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 삼 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개역, 창세기 22:1~19]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오심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개역, 요한복음 8:56~59]

오 후에 청년들이 잘 안 보이기에 “다 어디 갔어?” 하니까 시험 공부하러 간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하던데 저녁 예배에도 시험 때문에 못 나온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은 시험 때문에 신경 쓰이는 분들이 많겠죠.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받은 내용입니다. 마침 시험 기간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런 야만인 같은 하나님을 나는 섬길 수 없다.”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너무 쉽게 평가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을 동원해서 따져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무조건 따라가 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진짜 대가에게 뭔가 한 수 배우려면 이해하기 전에 순종하거나 모방해야 하는 법입니다. 말이 전혀 안되더라도 따라 해야 하는 법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려면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못 믿어? 이것은 깊고 오묘한 하나님을 내 짧은 지식으로 속단해버린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합니까? 비누 가지고? 누가 속을 청결하게 한다고 하이타이 마셨다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고 비누 써서 될 것 같으면 비누회사 사장이 제일 하나님을 잘 볼 걸요?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식을 깨끗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되든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어! 너무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내용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기말고사도 학생 잡고 부모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시험은 사람 잡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왜 칩니까? 대학교 입학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까?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입니까?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

아! 서울대학교에서 나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친다? 좋은 시험이죠! 그런 마음으로 시험치러 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나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친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생각이 좀 다르죠?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평소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릅니다.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나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구나. 평소에 좀 농땡이 친 사람은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 시험을 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입사시험은요? 여러분 대부분이 시험치르고 회사에 들어가셨죠? 입사시험은 내게 직장을 주려고 하는 시험입니까? 아니면 나를 떨어뜨리려고 치는 시험입니까?

줄려고.

줄려고 하는 시험요? 몇 분이 대답을 하셨는데 축하합니다. 그런데 학교 아이들 중간고사는 왜 치죠? 이미 들어간 아이들이 중간고사 왜 쳐요? 그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치는 시험입니다. 선생님들이 어떨 때는 좀 악랄합니다. 시험 날짜 잡을 때 중간에 꼭 주일 끼우죠? 토요일 두 과목 치고 월요일 몇 과목 치고... 왜 그래요? 토요일, 주일, 우리는 주일이지만 그 분들에게는 주일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악착같이 공부 하라고요. 공휴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충일 앞뒤로 끼워서 시험을 칩니다. 왜요? 딴 짓 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요. 학교에서 시험기간을 일부러 그렇게 잡는 걸 보면서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놀 때는 좀 놀게 해주면 안되나? 잔인하다 싶을 만큼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불평을 하면서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시험이 있어야 공부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시험이 없어지니까 공부 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이 있기는 있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시험은 입학시험 같습니까? 아니면 중간고사 같습니까?

중간고사.

중간고사 같습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공부하라고요? 성경의 시험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유혹이라고 표현하죠. 주로 내가 잘못해서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나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경성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해서 더욱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라기보다는 시련 혹은 연단이라고 표현하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니까 유혹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연단이라고 보아야겠는데 어딘가 연단이라고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시험치는 시기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때에 친 시험이냐에 따라서 그 시험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 21장 1절에 보시면 시험 친 시기가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을 치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에선지 잘 모르겠지만 이방지역인 아비멜렉의 지역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더니 벌을 누가 받았어요? 아비멜렉이 받은 겁니다. 아비멜렉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어요. 저 친구 말이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신다? 도

저히 안되겠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 사이 좋게 지내자. 조건이 하나 있다.” 무슨 조건이죠? “너, 제발 나한테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그것만 지켜주면 우리는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조약을 맺고 사이 좋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니다. 왜요? 상대가 안되거든요. 아비멜렉은 일국의 왕입니다. 자기는 그 나라에 살려 온 외국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거짓말만 안 하면 사이 좋게 지내겠는데 그러니 거짓말만 좀 하지 말아다오.” 하는데 아브라함이 마다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팔자가 어떤 팔자냐? 내가 거짓말을 막 해도 벌은 누가 받고요? 저 왕이 받는다. 저 왕이 답답하니까 나를 찾아와서 사이 좋게 지내자고 한다.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시험치를 준비가 다 됐을 때 시험을 치신 겁니다. 학교에 입학시험이나 중간고사 말고 또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주에 여태까지 배운 것 시험 한번 칠 거야” 중고등학교는 그게 잘 안되는데 신대원에는 나이 제법 드신 분들이 모였다고 “교수님!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기도 하고 다음 주에 이 시험도 있고 저 시험도 있는데 일주일만 연기하면 안 됩니까?”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이 야단치다가도 교수님들이 못 이긴 척 하고 미루어줍니다. 그 다음 주에 와서 “인제 쳐도 되지?” 하는데 “아이고, 마, 꼭 쳐야 되겠습니까? 기말에 한꺼번에 칠시다. 준비할 겨를이 없어서...” 하고 미루어 버린 게 더러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부터입니다. 미룰 때는 좋았는데 이제 막상 기말이 닥치니까 범위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 자꾸 미루어 주나요? 준비가 덜 됐다 하니까 미루어 주는 겁니다. 시험 중에는 때때로 그렇게 미루어가면서 치는 시험이 있습니다. 왜 미루어 줍니까? 시험 잘 보라고, 좋은 성적 내라고 미루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치는 이 때는 생애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었는데 깨끗하게 통과했으면 그건 아브라함의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 시험을 치렀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런 시험을 줘도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시험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근래에도 포철 직원들 중에 더러 시험치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슨 시험입니까? 시험치러 간다고 공차러도 안 나가데요. 진급하기 위한 시험입니까? 떨어지면 그만이고 붙거나 좋은 점수 따면 상도 준다면서요? 상 줄려고 치는 시험이죠? 그런 시험 같으면 한 번 쳐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치르는 시험이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습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브라함은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자녀를 바쳐라 하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자식을 죽이러 갔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생각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슬픈 건 슬프고 두려운 건 두려운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중국 가서서 숨어 지내다시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셨는데 정말 겁이 전혀 없었을까요? 나중에 한 번 물어보십시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두려운 건 두려운 것이고 슬픈 건 슬픈 건데 다른 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합니다. 자녀 둘을 억울하게 잃어버렸습니다. 그 죽은 두 아이의 장례를 치르면서 10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도 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대강 기억나는 것이 “한 집에 순교자 한 사람도 나오기 어려운데 한꺼번에 순교자를 둘이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여기 살면서 참 고생할텐데 정말 좋은 하늘나라로 일찍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10가지를 감사드렸습니다. 웃으면서 감사를 드렸을까요? 울면서 감사를 드렸을까요?

울면서.

확실해요? 그렇게 신앙 좋은 목사님이 울었어요? 그 감사 기도를 들으면서 그 식장에서 울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둘 죽인 범인을 찾아서 자녀로 삼겠다고 했을 때 딸이 “나는 아버지도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 분이 ‘나의 아버지 손양원’이란 책을 냈습니다. 그렇게 신앙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어떠했는지 사서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죽이거나 자식이 겪는 아픔만큼 부모가 크게 아픔을 느끼는 경우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산에 갔다 묻지요. 자식은 어디 갔다 묻죠?

가슴에 묻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권사님들이 아시는 거야 당연하겠죠. 부모님은 산에 갔다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자식의 아픔과 자식의 죽음은 부모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좋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이겨낼 힘이 있을 뿐이지 아픔조차 없다는 것은 아니란 애깁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을 죽이는 것은 남들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이 아이 하나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는데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포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다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겨우 노년에 하나 얻은 자식입니다. 이 자식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자식 죽이려고 몇 일을 걸어갔습니까? 사흘 길을 갑니다. 덜컥 죽이는 것은 쉬울런지 모르겠는데 사흘동안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분은 워낙 순종을 잘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밤새 잠이 왔겠습니까? 밤새 뒤척뒤척하고 괴로워하다가 “에라, 이럴 바에야 빨리 가는 게 편하겠다. 그만 가자.” 그런 마음으로 일찍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흘 길을 아픈 심정으로 가야 했습니다. 비록 서자였지만 데리고 있던 이스마엘도 이 사건 이전에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보내라 해서 내보냈습니다. 이 이삭이 죽고 나면 이제 자식이라곤 없어요. 자녀를 길러본 분은 압니다. 어린 애 하나도 있다가 없으면 얼마나 허전한가를...

혹시 자다가 꿈에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깨어나서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탄의 장난일거야. 아니야 내가 평소에 개꿈을 많이 꾸었는데 이것도 개꿈일거야.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쉽게 순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자기 손으로 어떻게 죽입니까? 이건 더더욱 어려워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첫 번 행사장 갔던 날, 닭 한 마리 풀어 놓고 온 성도들이 잡으려고 뛰는 걸 보니까 닭이 불쌍해 죽겠어요. 나중에 잡아서 “전도사님 이것 가지고 가세요.”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압니까? 제가 보기보다 마음이 좀 여립니다. 닭 목을 어떻게... 그런데 자녀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깨끗하게 실천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믿고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이 이삭이 죽지 않고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표가 안 나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고 할 때 영어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주어가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후손은 반드시 이삭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약속이 이미 그 전에 있었습니다. 이삭이 만약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17월부터 봐야 되겠네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주 번창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 지구상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천주교의 교인들도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 교인들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의 후손보다 많은 후손

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약속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문을 얻는다, 정복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사탄을 완전하게 정복해버린 예수님의 승리를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겨 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금 처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언제 하셨습니까?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때 네 씨가 많아지게 하겠고 땅을 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이미 약속했던 것이라면 이번 일로 아브라함이 얻은 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약속한 이유는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니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몰랐단 말입니까?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도 이 사건이 있기 전인데 새삼스럽게 이 일로 이런 복을 주시겠다니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 시험을 친 것이 그 이유입니다. 말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라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편이 돼서 보호하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이 느낀 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득이더라는 겁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나는 모르지만 어쨌건 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게 유익이더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가슴 아프지만 하는 겁니다. 어떠한 명령, 어떠한 시험에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을 바친 믿음입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만들어 오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기는 내가 믿음’에도 성경은 분명히 믿음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도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기는 분명히 내가 믿고, 교회 오는 것도 분명히 내가 왔습니다. 고백도 내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충분히 통과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능력이 좀 부족한가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아니 이런 칭찬을 하고 싶어서 이런 시험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마당에서 툇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 딸 애가 세 발 자전거를 타던 녀석이 옆집 애 두 발 자전거를 빌려 타고 아파트를 한바퀴 돌고 오더라고요. 멀리서 그걸 보는 순간에 “아, 자전거 하나 사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바퀴를 돌고 오니까 친구 녀석이 빼앗아 버렸습니다. “내놔” 짹 소리 못하고 주더군요. 저한테 툼틀레 오더니 “아빠 자전거 사 주세요” 하더라고요. “사 줄게” “이야!...” 빨리 사러 가자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하도 땀을 흘리다가 그 날은 결국 한대 터졌습니다. “아빠가 사준다고 했으면 사줘야지” 지금은 안된다 하는데도, “당장 사준다고 했잖아. 왜 약속 안 지켜” 이러다가 결국 한 대 얻어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전거 소리 안 하더군요. 성탄절이 다가올 쯤에 학교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잘 했더라고요. “이야 공부 잘했네. 자전거 사러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사 왔어요. 애는 아빠가 자전거를 왜 사줬다고 생각할까요?

공부 잘해서.

“내가 공부 잘해서 우리 아빠가 자전거를 사줬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안 맞습니다. 그 자전거는 재가 세 발 자전거를 타다가 남의 두발 자전거 빌려서 타는 걸 아빠가 보는 순간에 자전거는 이미 생긴 겁니다. 이 아이가 공부

잘했다고 아빠가 자전거 사줬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멋지게 통과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 놓고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야! 이제 보니까 내가 정말 나를 믿고 순종하는구나! 선물을 줄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자꾸 생기나 하고 얼굴 찡그리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내가 부족해서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최대한 노력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내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싶거든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건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또 무슨 복을 줄려고, 무슨 건수 하나 잡아서 그 핑계대고 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할 때 “하나님, 무슨 고약한 심보가 있어서 하필 이런 걸 시키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면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러시는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면 고통을 견디기도 쉬워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다른 많은 사람을 내버려두고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창세기 18장 17-1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행하는 건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누구니까? 하나님이예요. 그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더 관심을 갖고 싶은 부분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도저히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가 없더라는 얘깁니다. 왜 못 숨겨요? 여러분, 속에 비밀을 간직한 채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사랑하는 경우입니다. 너무 사랑하면 물어놓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도저히 입을 다물고 있지를 못합니까? 이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야고보 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자녀. 백성.

그것은 평소 실력이고, 자녀나 백성정도가 아니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물어놓고 계시지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털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은 비밀이 뭘까요? 요한복음 8장을 꼭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어서 싸우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 나이가 지금 얼마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나이 오십도 안된 게 라는 말이 나오니까. 예수님 그때 연세가 얼마죠? 겨우 서른 넘었으니 ‘사십도 안된 게’ 이러면 이해가 될텐데 오십도 안된 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보고 어떤 분이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생을 얼마나 하셨으면 겨우 서른 조금 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이가 오십도 안된 게 하느냐?”는 거죠. 그 분 성경 참 잘 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말이나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고 하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던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눈으로 친히 보았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사흘 길을 가는 그 아픈 고통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아

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체험으로 알았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걸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좋지만 아브라함에게만은 얼마만한 아픔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러 올라가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아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의 아픔은 어디 가고 하나님의 아픔만 남았더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느낄 수만 있다면 그 이상 기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는 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알리고자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학교 시험은 입학을 시키려고도 치고, 공부하라고도 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험 종류가 늘었습니다. 요즘 학교마다 새로 생겨서 유행하는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상 줄려고 치는 시험이 생겼어요. 요즘에 무슨 상이라도 무조건 줄려고 안달입니다. 상급학교 진학할 때 상 받은 게 점수가 되니까 학교에서도 자기 학교 학생을 유리하게 하게 위해서 상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상을 줄려고 자꾸 치게 하는 겁니다. 안 치는 애 보면 누가 답답해요? 선생님이 답답합니다. “야! 치기만 치면 상 준다. 쳐라! 쳐!”

오늘 주일학교 초등부 달란트 시상을 했는데 달란트 시상을 열 때마다 결석하는 아이를 보고 누가 답답해 할까요? 선생님들이 답답해요. 몇 년째 그런 아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왜 답답해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려고 하는데 하필 그 날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개는 몇 년째 달란트 모아놓기만 하고 그 때마다 빠지니까 선생님들이 달아서 야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상 주시려고 치는 시험입니다. 무슨 상일까요? 이 상을 통과함으로 아브라함은 명실공히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타이틀을 주시려고 시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알리고 싶어서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체험적으로 알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여야 하는 뼈저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픔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예수를 아브라함은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피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 닥친다고 생각이 되시거든 “왜 내게, 왜 이런 아픔이 닥치느냐?” 혼자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를 먼저 기억하시고 나의 이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생각하십시오. 기대한 것보다 아니,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바치라는 무식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